전남도교육위의장 선거때 위원들간 수천만원 오갔다

모 위원 "당신은 깨끗하냐" 발언에

서견용 의장, 위원 간담회서 폭로

지난해 9월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수천만원대의 금품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 9명은 지난 16일 광주 모 음식점에서 전체 간담회를 갖고 서견용 의장의 사퇴 및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서 의장은 "조용히 물러나고 싶으니 더 이상 (불신임안 제출 등에 대해)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서 의장의 사퇴 의사에도 불구하고, 서 의장이 광주일보〈16일자 1·3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교육위원의 이권개입 주장 등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출했다.

모 위원은 서 의장에게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게 (교육위원)했다고 우리를 매도하냐"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장은 "난 부끄러운 게 없다.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A위원에게 받은 5천만원도 모두 돌려줬다"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장은 지난해 9월 제 5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불출마 의견을 밝히고 A위원을 지지했으나, 선거 막판 9명의 위원이 4대 5로 양분돼 교육위원회가 분열 조짐을 보이자, 추대 형식으로 출마해 당선됐었다.

서 의장은 17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5천만원 발언과 관련,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다.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알고 받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니냐. 교육자 출신으로 한때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에서 털어놓은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서기남 위원도 "이날 전체 간담회는 그동안 위원들간에 쌓인 앙금을 모두 털어내기 위해 마련됐고, 5천만원 얘기도 지나가는 말로 나온 것"이라며 "이 날의 주제는 위원들간 화합의 자리였던 만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위원은 "당시 나를 지지했던 위원들은 서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 동문으로, 순수한 의도로 밀어줬다"며 "서 의장이 지나간 옛 얘기를 꺼내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료도 안 한 의사에 1년 반 동안 월급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이고 세차 동원

기막힌 목포 장애인시설

"진료도 하지 않은 촉탁의사에 18개월간 급여 지급, 언어치료사가 약 처방,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공급…"

목포시가 장애인협회와 함께 A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지난 6월 한 달여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비위 사실들이다.

감사결과 시로부터 매년 8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촉탁의사가 월 2회 8시간 진료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8개월 동안 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시설은 지난해 매월 197만원, 올해는 210만원 등 모두 3천639만원의 급여를 촉탁의사가 소속된 법인 병원으로 입금했고, 이 의사는 급여 일부를 이 복지시설에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이 되자 간질과 정신질환을 앓는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약 처방을 언어치료사가 맡기도 했다.

특히 이 복지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빵과 음식물 등을 지급하고, 원장과 국장 등 직원 차량 세차에 동원하기도 했다.

목포시는 이밖에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과 시설장의 시설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 등 14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당하게 쓴 보조금 3천643만원을 오는 24일까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원장이 스스로 물러났다"며 "감사결과 드러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나원참 〈7906〉 김종두

만취운전 대학생 노인 치사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광주 모 대학 2년 H(23)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H씨는 이날 오전 북구 문흥동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0% 상태로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정모(여·73)씨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얼굴없는 기부천사' 올 추석도 어김없이…

30대 과일도매상

광주 북구에 배 300상자

2007년부터 명절마다…

'얼굴없는 기부천사'로 알려진 30대 과일도매상이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수백상자의 과일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광주에서 과일도매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배 300상자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북구청에 기탁했다.

북구는 17일 A씨가 기탁한 배상자를 독거 노인세대에 전달했다.

그는 올 초 설을 앞두고 배 500상자(500만원 상당)를 기증했으며, 지난 해 연말에는 1천만원 상당의 귤 1천상자를 1t 화물 트럭에 싣고 와 구청 광장에 내려놓고 갔다.

그는 지난 2007년 9월 초 배 570상자(570만원 상당)를 기탁한 이후 매년 명절 때 이 같은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과일도매업을 하다가 실패한 뒤 재기에 성공, 당시 도움 받았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17일 북구 용봉동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기탁한 배 300상자를 독거노인 세대 등에 전달하고 있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불우한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배 500상자와 귤 1천상자를 북구청에 기탁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북구청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 했으나 그는 정중히 거절했으며,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매번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며 구청의 감사 표시를 거절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등경기장 야구장 암표상 "꼼짝마"

광주경찰 단속 나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18~20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암표 매매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지구대 요원과 기동대 등을 비롯해 북구청과 무등경기장 관리사무소, 구단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KIA타이거즈의 상승세로 경기마다 1만3천여명의 관중이 몰려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허위 증빙서류 제출 어업보상금 수 억 원 수령

여수해경, 어민 11명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17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수 억 원의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타낸 김모(49)씨 등 어민 11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시작된 전남지역 한 연도교 가설공사와 관련, 어업피해 규모 평가과정에서 무허가 낭장망 시설에서 조업한 실적을 마치 실제 보상지역 안 어장에서 조업한 것처럼 허위 위판서류를 작성, 제출해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어민 10명도 같은 수법으로 한 명당 적게는 2천300만 원, 적게는 2천700만 원의 보상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희망근로 해고 격분 흉기로 동료 찔러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17일 희망근로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흉기로 찌른 문모(7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4일 오후 북구 최모(66)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당신 때문에 희망근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최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

○…문씨는 지난 5월부터 희망근로에 참여했다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구청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문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했다. 돈벌이를 못한다고 생각하니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